

北美自由貿易協定 締結과 우리의 對應方案

朴 勝 億

〈韓國貿易協會 通商協力部 次長〉

美國,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北美自由貿易協定 (NAFTA) 을 체결기로 합의했다. 지난 1991년 2월 5일 美國, 캐나다, 멕시코 北美 3국의 정상들에 의해 北美自由貿易協定 추진에 관한 공표가 있는지 1년 6개월여만의 결과인 셈이다.

이로써 인구 3억6천만명, 國民總生産 (GDP) 規模 6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창설되게 되었다.

물론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체결에 따르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협정의 발효시기는 1994년 1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北美自由貿易協定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北美自由貿易協定은 域內國間의 關稅 및 非關稅 장벽 철폐로 인한 域內國으로의 무역전환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域外國의 對北美市場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原產地規程 強化로 域內國 산업보호에 치중하여 세계 경제의 투자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北美自由貿易協定이 域外國家들에 대해 배타적·차별적 성격으로 흐를 경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이는 UR 협상의 성과여부와 EC 통합의 추진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관세율이 높고 비관세장벽이

많은 품목들인 섬유·신발·철강 등에서 수출경쟁력의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면을 보면 北美自由貿易協定으로 인해 北美 3국중 멕시코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새로운 需要市場이 創出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美州市場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멕시코의 투자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北美自由貿易協定 협상이 시작된 이후 멕시코가 賃金수준과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對韓輸入을 대폭 대체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우리나라의 수출감소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측도 있다.

① 멕시코의 對美輸出 상품은 70% 이상이 이미 GSP 또는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되고 있으며

② 멕시코는 숙련 勞動力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高度技術 産業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品質競爭力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③ 北美自由貿易協定 發效 이후 단기적으로는 北美경제권내의 國際分業化가 진전됨에 따라 멕시코의 산업구조가 급속히 전환되어 우리나라와의 상대적인 경쟁관계가 오히려 완화되거나 멕시코 내에 우리 상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④ 캐나다의 경우 비록 미국에 비해 관세는 높은

실정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간의 交易規模가 미미하고 양국이 모두 미국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캐나다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입게 될 수출감소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經濟統合은 무역전환 또는 무역창출 효과에 따라 제3국이 받게 되는 경제영향은 비교국가간의 무역구조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北美自由貿易協定은 단일 交易市場이 형성됨에 따라 상호 동일한 환경 및 勞動規制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즉 자본과 기술 및 노동의 상호 이동이 자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무역개방만의 차원이 아닌 것이다. 멕시코의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60% 정도 수준이며 미국 보다는 6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각국의 기업들은 北美自由貿易協定 체결 이후 對멕시코 投資效果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1991년만 해도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北美市場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시장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北美地域 수출규모는 95억 3천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26% 수준에 이르렀고 수입은 1백4억6천5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北美 3개국 시장은 우리나라 交易規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장 거대한 해외시장인 것이다.

北美自由貿易協定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중의 하나로서 특히 輸出業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至大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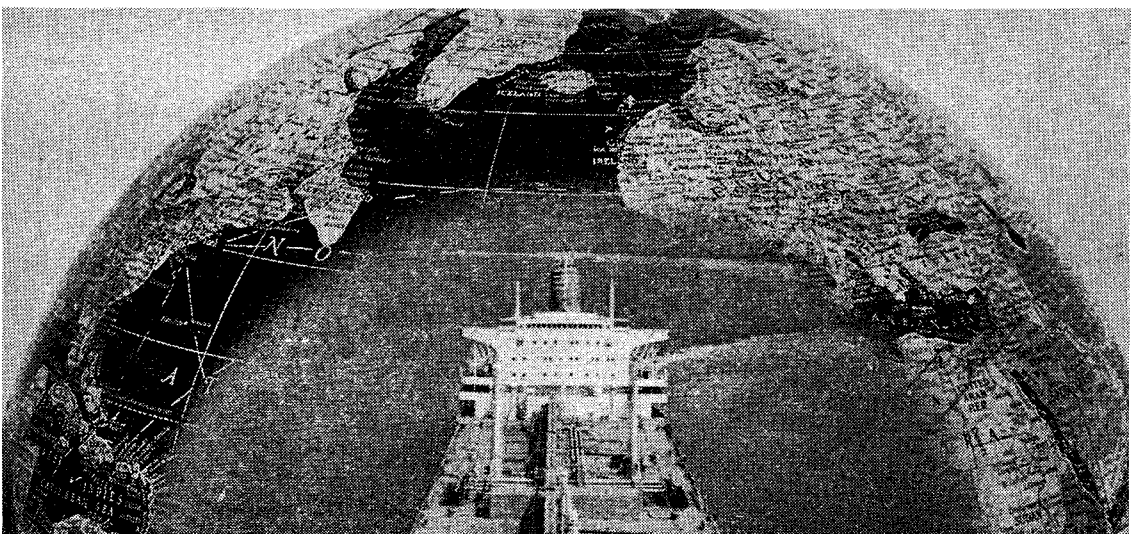
北美 3개국간의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및 域外國에 대한 原產地規程 강화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는 이 지역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수출경쟁 관계에 있는 멕시코에 무관세 혜택 등의 특혜를 향유케 함으로써 우리나라로 하여금 對美輸出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對美輸出規模가 큰 컬러 TV,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및 섬유·의류제품의 수출이 향후 미국에 대한 수출여건의 악화로 크나 큰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北美自由貿易協定에서는 原產地規程을 강화함으로써 北美 3개국인 미국·캐나다·멕시코 지역에 이미 진출한 業體뿐만아니라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現地投資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수출업체중 北美 3개국에 이미 진출한 업체들이 域內國에서의 交易行爲에 대해 輸出無關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로부터 部品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가 공하던 投資戰略을 전면 개편·재수정하여 現地生産品으로 부품 공급선을 전환해야 하며 향후 북미 지역 진출희망업체들도 投資進出 전략 수립시 거듭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유럽공동체(EC) 경제통합에



이는 北美自由貿易協定 체결·합의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블록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교역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번 北美自由貿易協定 타결·합의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의 유지·확대와 성장잠재력이 큰 멕시코시장 선점·확보라는 목표하에 부품의 現地調達比率의 제고와 現地 投資 전환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北美自由貿易協定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응전략을 요약하면 첫째, 北美自由貿易協定의 주요내용 가운데 우리 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관세철폐(무관세혜택)와 原產地規程의 강화인바 미국의 對멕시코 無關稅特惠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품인 컬러 TV(관세율 5%) 등 가전제품 및 高關稅品目(17~18%)의 관세철폐, 차별적인 비관세장벽(MFA, 쿼터 등) 제거 상품인 섬유·의류산업 등은 對美輸出 규모 유지 확대라는 차원에서 수출거점 확보를 위한 對멕시코 직접 투자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原產地規程의 강화로 인해 現地投資法人의 대미수출상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부품조달 비율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인력·정보 등이 우월한 대기업과 또한 협력관계에 있는 부품제조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미 3개국뿐만 아니라 凡미주통합을 계획하고 있어 멕시코는 미국의 輸入規制措置를 피할 수 있는 우회수출기지로써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輸出據點地域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우리 정부는 수출업체의 對멕시코 投資進出 확대유도를 기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멕시코 양국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 협정의 조속한 체결 추진, 海外投資 지원제도 강화, 對南美 투자여건調查·분석,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지역관련 홍보 강화 및 民航機의 멕시코 취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멕시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다.

둘째, 北美自由貿易協定 체결로 인해 멕시코 지역의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의 기업들의 對멕시코 진출이 증대될 것이며 이미 진출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촉진될 경우 앞으로 멕시코의 對美 수출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인바 우리나라와 치열한 對美輸出競爭이 예상되는 가전제품,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 섬유·의류산업의 수출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높은 대외의존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北美市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역내 個別國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체제 구축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비교우위전략을 중래의 가격경쟁력 위주에서 벗어나 研究·技術開發 투자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추진,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경쟁력 강화 노력 및 市場進出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北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雙務的 차원뿐 아니라 GATT 理事會나 UR과 같은 다자기구 체제를 통해 경제블록이 역외국에 대한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통상의 교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北美自由貿易協定 締結로 인한 原產地規程 강화 또는 외국인 투자 완화 및 무역자유화조치 등이 제3국에 대해 차별적인 적용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지역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각종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면제제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韓·멕시코정부의 雙務的 차원에서 通商外交活動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雙務的 차원의 통상의교노력과 병행하여 UR의 기술장벽협정, 原產地規程 등 분야별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GATT 理事會 등을 통해 지역주의적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표명 및 우리나라의 현실 입장의 개진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